

## 전남 국회의원 2명 줄어든다

영광·함평, 강진·완도, 여수 인구 하한선 붕괴  
(10만5천명·31만5천명)

### 선거구 조정 신경전...광주 광산은 2명으로 늘어

18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18대 총선일 2008년 4월 9일 1년 전)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지역에서 2개 단일 선거구와 1개 복수 선거구의 인구 하한선이 붕괴돼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선거구 폐지·개편이 예상되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현역의원들의 신경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선거구 조정 변수는 여권발 정계개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17대 국회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기준(10만5천명~31만5천명)이 18대 총선에서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전남지역에서는 최대 2개의 선거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에서는 1개의 선거구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6일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하한선 10만5천명이 무너진 선거구는 영광·함평(민주당 이낙연 의원), 강진·완도(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 등 모두 2곳이다.

2006년말 현재 영광군과 함평군의 인구는 각각 6만269명, 3만8천956명

으로 9만9천225명을 기록, 단일 선거구 인구 하한선보다 5천775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강진군과 완도군의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각각 4만2천109명, 5만7천689명으로 9만9천898명을 기록, 단일 선거구 인구 하한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천102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갑, 을 두개의 선거구로 나뉘었던 여수시(열린우리당 김성곤 의원, 중도통합신당 주승용 의원)의 인구도 지난해 말 현재 29만8천825명으로 단일 선거구 상하한선인 31만5천명 아래로 무너져 원칙적으로 1개의 선거구로 통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차기 총선에서는 여수시가 단일 선거구로 통합되고 영광·함평과 강진·완도의 지역구가 조정을 거치면서 전남지역은 최대 2개의 선거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광주 광산구는 지난 2006년말 현재 인구는 총 31만1천621명이지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로 인구 유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올 상반기 내에 단일 선거구 상하한선인 31만5천명을 무난히 넘어서 두개의 선거구로 분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차기 총선에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자 전남 지역 지역구 의원들의 신경전도 날카롭게 펼쳐지고 있다.

단일 선거구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영광·함평의 경우 인근의 장성군이 편입될 것이라는 설이 퍼지면서 장성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효석 의원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단일 선거구로 폐쇄될 전망이다 여수시와 관련, 최근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으로 포진한 김성곤 의원과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주승용 의원의 관계도 미묘해지고 있다.

강진·완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호 의원 측은 "수도권 향우가 30만"이라며 "조금만 신경쓴다면 인구 하한선 회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구 붕괴 위기에 빠진 일부 전남지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2개로 분할되는 광산구로 옮겨간다는 설도 그럴듯하게 제시되고 있다.

한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을 40일 정도 남긴 상황에서 국회는 정계 특위는 물론 선거구획정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있어 18대 총선 선거구 획정도 총선을 두달 정도 앞둔 내년 2월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봄내음을 버무리세요

남녘에는 벌써 봄이 도착했다. 25일 완도군 완도를 죽청리에서 사각거리라는 맛이 일품인 곁절이용 봄동을 따는 아낙네들의 손 끝마다 훈훈한 봄내음이 물씬하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 “전교조 이익단체로 변했다”

내일 창립 20돌...“정치·관료적 변질” 자성 촉구

전교조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출신으로 현직 교사이자 시민단체 대표가 오는 27일 전교조 창립 20주년을 맞아 자성을 촉구 하고 나섰다.

김대유 학교자치연대 공동대표는 25일 “전교조는 정치적, 관료적으로 변질했으며 방대한 속제에도 불구하고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전교조 교육운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전교조는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이기적인 이해단체로 변질했다 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1997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교조 정책위원, 정책연구국장, 교장선출보좌제와 학교자치추진단장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

서문여중 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먼저 “전교조가 정치적인 것은 ‘정치노조’의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교장선출보좌제나 학교자치 같은 현장의 절실한 요구보다는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 올인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교조는 130명의 전임·상근 인력과 연간 100여원을 웃도는 예산이 있으며 각종 이슈에 대해 ‘이슈 파이팅’을 하는 단체임에도 관료주의와 철학의 빈곤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를 진단하고 비전을 갖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단체의 유지·생존에 급급해 미룰 수밖에 없었던 정책개발에 대한 전문성 확보, 인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라며 “국제 교원단체의 활동을 거울삼아 교조의 노동

직성과 전문직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조직의 정체성 확립과 발전, 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내부 비판과 토론이 필요하며 일면 수긍하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 내부에서는 이미 투쟁 일변도의 교원노조 운동 행태에 실망하는 여론이 비등했고 이는 조합원 감소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

전교조 조합원은 지난 2003년 6월 가장 많았던 9만 4천473명에서 꾸준히 줄어 지난해 12월 8만 6천 918명까지 감소했다.

광주와 전남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는 각각 4천425명과 8천191명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

## 전작권 2012년 4월17일 환수

### 한·미 국방장관 합의

오는 2012년 4월17일부로 한반도 전작권전환계획(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되고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된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90여분간 진행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오는 2012년 4월 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를 전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7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 합의한 뒤 즉시 이행에 들어가 2012년 3월 최종 전환 연습을 통해 완결시키기로 합의했다. (관련기사 5면)

양측은 전작권의 최종 전환에 앞서 2010년부터 수 차례의 검증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한국군

주도의 훈련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보완할 방침이라고 국방부 측은 설명했다.

양측은 또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을 차질없이 전개 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새로운 전작권 전개 계획 등에 이같은 내용을 명확히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미 양측은 그동안 전작권 이양 시기를 놓고 미국측은 3년 정도, 한국측은 2012년 이후를 내세워 현격한 이견을 보였으나 양국 국방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날짜를 전격 확정했으며, 이는 미국측이 한

국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본다. 국방부측은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재래식,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준비태세의 중요성을 논의 하고 한미동맹은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고도의 연합 전투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 및 연습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밖에 주한미군 부대 및 시설의 재배치, 용산재배치 계획,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뮤지컬 '에비타' 광주공연  
3월 9일(금)~11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변호사 개업인사**

변호사 서정암

·주최일시: 2007.2.28(수) 오후 5시부턴  
·장소: 광주 동구 차산동 710-2  
·문의: 062-226-5112-4  
·팩: 062-226-5115

젊은이여! 살롱하라...  
요즘은 여자가 더 피로하다!

젊은이여! 중요해!...  
요즘은 남지도 피부다!

알려라, 살롱하라...  
요즘은 여자가 더 피로하다!

알려라, 살롱하라...  
요즘은 남지도 피부다!

한인 100세를 위한 ILDONG 앞등제약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비타민 C·E, 셀레늄, 아연) 보강!

피르와 피부가 걱정된다면 활성산소부터 잡으세요!

피로, 스트레스, 흡연, 공해가 심해지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쌓이고, 오래 지속되면 각종 질병과 성인병, 피부노화를 부르기 쉽습니다. 아로나민씨를 복용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 C·E, 셀레늄, 아연 등 항산화제가 보강되어 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건강과 피부를 지켜줍니다.

아로나민씨 플러스

피로·스트레스 / 기미·주근깨 / 색소沉着 / 활성·수유기 / 요통·신경통

☎ 제품문의: 080-022-1010 (평일) www.aronamin.com